

2011년 4월



## ← 작은 누설이라도 놔두면...

공사장에 조그만 물이 새면서 순식간에 대규모의 재앙적인 누수로 발전하는 사진입니다. 사진들은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이 사고는 공정산업 종사자인 우리에게도 배관이나 장치물에서 감지한 누설을 보고 하고 보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줍니다. 양에 상관없이 모든 누설은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독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설은 위험 등급이 높지만, 사진에서와 같이 어떤 물질의 누설일지라도

## ...대규모 누설이 됩니다! →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의 소규모 누설은 즉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또는 독성이 약한 물질의 누설은 빠르게 확산되어 중대 화재, 폭발, 또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 ➔ 근무 중 목격한 모든 누설은 바로 보고 합니다. 웅덩이, 방울방울 흘림, 변색된 도장이나 보온 그리고 특이한 냄새는 누설의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때 누설이 보수되는지 후속 확인 하십시오.
- ➔ 누설의 소재를 파악 하고 플랜트의 절차에 따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누설은 보수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누설물을 제한 또는 흡수, 안전한 장소로 드레인, 위험 경고 표시를 하거나 바리케이트를 쳐서 위험을 알리고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누설물이 가연성, 인화성 물질인 경우 점화원이 제거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플랜트의 응급과 누설 대비 절차엔 취급하는 물질에 맞는 특정 작업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 누설을 보수하기 위한 정비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배관이나 압력용기를 비워야 하고, 설비나 공정을 가동 정지해야 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선 어떤 설비는 격리되기도 해야 됩니다. 수리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위치에서 누설을 모니터링하여 누설 크기가 증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보온되어 시야에 가려진 장치물을 검사하거나 모니터링 할 때엔 누설의 흔적을 찾아 보고 하여 보수되도록 합니다.

**작은 누설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